



2001

Busan
Theatre
Festival

제19회
부산연극제



국립극집단 시나위
문제적 인간, 연산
작/ 이운택 · 연출/ 홍성모
2001. 4. 5 PM3 시, 6시
문화회관 중극장



대표 오정국



연출 홍성모

◎ 연출의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다. 작은 몸뚱이로 세상에 나와 어머니의 손에서 흙의 품으로 안길 때까지 인간은 크든 작든 자신의 역사 속에서 여러 역경을 만나며, 자신의 생을 만들어 간다.

여기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의 이야기를 들추어본다. 평범한 인간을 다스리는 인간 위의 인간,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결코 임금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정을 힘들게 걸어갔던 인간 연산.

우리는 그를 임금으로서만 보려는 것이 아니다. 그를 역사 편에 서서 문책하려 함도 아니다. 우리는 그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사 위에 어떻게 놓여져 있었던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싫지 않은 소망, 희망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그가 임금이든 혹은 그 이상의 지위에 있든 간에 인간으로서의 좌절과 절망, 그리고 고독, 고독으로 인한 그리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연산의 이야기를 펼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임금으로서의 연산, 자식으로서의 연산, 남자로서의 연산, 아이로서의 연산을 통해 그가 가졌던 인간,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의 문제와 역사와 인생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무엇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다. 여기에 우리 앞에 살다 간 한 인간의 일면을 바라보며, 역사나 저술이 아닌 진솔한 인간으로서의 연산, 그와 만나고 싶은 것이다.

◎ 작품줄거리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의 이야기다.

어머니, 폐비 윤씨의 길일을 맞아 작은 제의를 지내려 하지만, 대신들은 유학과 선왕의 권계를 들며 이를 만류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 왕의 명을 일일이 거스르며 왕권을 업신여긴다. 이에 연산은 지난 날의 사적과 이론 일체를 거부하며 스스로의 왕권을 세운다.

“나는 조선의 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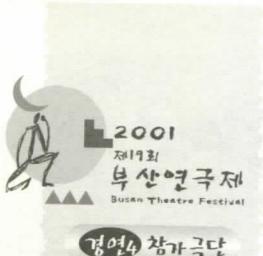
그는 이로써 일체의 권력에 맞서며, 어머니의 제의를 시작한다. 여기에서 녹수는 신을 받아 폐비 윤씨의 혼을 입는다. 폐비의 혼을 받은 녹수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리고 아들 응을 죽이려 했던 엄귀인과 정귀인의 음모를 밝히고 이에 격분한 연산은 칼을 뽑아 엄귀인과 정귀인, 그리고 인수대비를 차례로 살해한다. 이 때 무대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생사를 넘나드는 대화의 장이 되어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굴레의 환락을 이야기 하며 진혼극으로 이어진다. 또한, 몽유(夢遊)의 녹수를 통해 피적삼이 든 함을 발견하게 되고, 이에 연산은 피적삼을 들며 세상을 평정하리라 한다.

이어 연산은 개혁을 위한 피흘림인지 피를 보기 위한 반란인지 모를 과도한 정권을 휘두르며 피의 학살을 시작하고, 이를 막리는 처선마저 죽인다. 이어 숭재가 데리고 온 완산월을 보며 연산은 다시 완산월과의 환락에 빠져든다. 녹수는 완산월의 손목을 잘라 연산의 아침 수라상에 올린다. 이 때 성희안과 박원종 무리들이 들이닥쳐 연산과 그의 무리들은 죽임을 당한다. 이로써 연산의 혁명 시대는 막을 내리고, 문제적 인간으로서의 연산은 다시 인간으로, 영(靈)으로 돌아간다.

청도투우운영법인/문화관광부지정사업



代表理事/行政學博士 朴 善 圭
본사: (051) 867-3741~2



CAST



장녹수 / 김혜정



연산 / 도광원



처선 / 박상규



인수대비 / 최은영



임승재 / 고동민



자원 / 김지양



정귀인 / 이선주



대신, 박원종 / 손안모



대신, 박열 / 백길성



대신, 성희안 / 남성호



폐비윤씨 / 김혜원



완산월, 엄귀인 / 권보미



궁녀 / 윤성혜



대신 / 반필우

한가람합동법률사무소

김동훈 · 김용대

부산시 서구 부민동4가 10번지
(고등법원 앞 태영B/D 3층)

TEL : (051) 248-4200



STAFF



무대감독
무대미술
무대장치
오정국



기획 최은영



안무 강미리



소리지도 류상일



음향 최복남



사물장단 이선구



작곡·음악 인병오



무용지도 김언정



의상 김도형



소품 김유선



녹수소리지도 강경아



연기지도 박상하



조명 유상흘



분장 손서운



진행 조영진

태평소 백정강
사진여분회
분장모남연

동아대학교 영화의상연구회

김도형 하나현 이수연
전유미 안희영 이여울
윤성희 서지영 류혜선

부산대무용학과

종합국제
해미드



이선구
정재욱
임병엽
이광호



토털 디자인 전문회사 - 범우기획

BUMWOO
creative & visual impact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리3동 75-8
TEL:(051)304-3670~2



TEL : (051)743-4185
www.leportswork.co.kr